

### 1. 개요

□ '23.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)은 0.39%로 전월말(0.43%) 대비 0.04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21%) 대비 0.18%p 상승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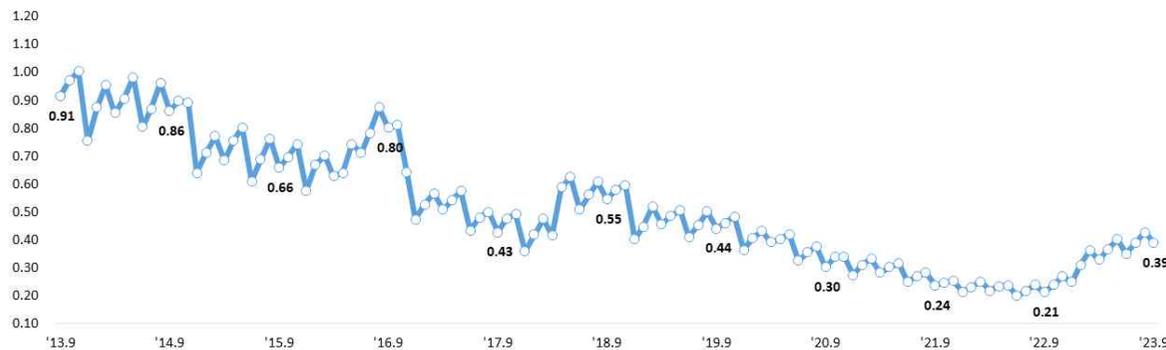
○ '23.9월중 신규연체 발생액\*(2.2조원)은 전월(2.2조원)과 유사하며, 연체채권 정리규모\*(3.0조원)는 분기말 상·매각 등으로 전월(1.4조원) 대비 1.6조원 증가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('21.9월) | ('22.9월) | ('23.4월) | ('23.5월) | ('23.6월) | ('23.7월) | ('23.8월) | ('23.9월) |
| * 신규 연체채권 규모(조원) | 0.8      | 1.1      | 1.8      | 2.1      | 2.0      | 2.0      | 2.2      | 2.2      |
| 연체채권 정리규모(조원)    | 1.7      | 1.7      | 0.9      | 1.3      | 3.1      | 1.1      | 1.4      | 3.0      |
| 연체채권 증감규모(조원)    | △0.9     | △0.6     | 0.9      | 0.8      | △1.1     | 0.9      | 0.8      | △0.8     |

○ '23.9월중 신규연체율('23.9월중 신규연체 발생액/'23.8월말 대출잔액)은 0.10%로 전월(0.10%)과 유사한 수준\* [전년 동월(0.05%) 대비 0.05%p 상승]

\* 신규연체율(%) : ('22.9) 0.05 → ('23.5) 0.10 → ('23.6) 0.09 → ('23.7) 0.09 → ('23.8) 0.10 → ('23.9) 0.10

원화대출 연체율 추이



※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,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

### 2. 부문별 현황

□ (기업대출) '23.9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(0.42%)은 전월말(0.47%) 대비 0.05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23%) 대비 0.19%p 상승]

○ 대기업대출 연체율(0.14%)은 전월말(0.13%) 대비 0.01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05%) 대비 0.09%p 상승]

○ 중소기업대출 연체율(0.49%)은 전월말(0.55%) 대비 0.06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27%) 대비 0.22%p 상승]

- 중소기업인 연체율(0.52%)은 전월말(0.59%) 대비 0.07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33%) 대비 0.19%p 상승]

-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(0.46%)은 전월말(0.50%) 대비 0.04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19%) 대비 0.27%p 상승]

□ (가계대출) 가계대출 연체율(0.35%)은 전월말(0.38%) 대비 0.03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19%) 대비 0.16%p 상승]

○ 주택담보대출 연체율(0.24%)은 전월말(0.24%)과 유사 [전년 동월말(0.12%) 대비 0.12%p 상승]

○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(신용대출 등)의 연체율(0.65%)은 전월말(0.76%) 대비 0.11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37%) 대비 0.28%p 상승]

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

| 구분      | 연체율 시계열 ('13.9월~'23.9월) | '20.9월 | '21.9월 | '22.9월 (A) | '23.8월 (B) | '23.9월 (C) | 증감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전년동월 (C-A) | 전월 (C-B) |
| 기업대출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0.37   | 0.30   | 0.23       | 0.47       | 0.42       | 0.19       | △0.05    |
| 대기업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0.28   | 0.28   | 0.05       | 0.13       | 0.14       | 0.09       | 0.01     |
| 중소기업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0.40   | 0.30   | 0.27       | 0.55       | 0.49       | 0.22       | △0.06    |
| 중소법인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0.53   | 0.40   | 0.33       | 0.59       | 0.52       | 0.19       | △0.07    |
| 개인사업자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0.25   | 0.19   | 0.19       | 0.50       | 0.46       | 0.27       | △0.04    |
| 가계대출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0.22   | 0.17   | 0.19       | 0.38       | 0.35       | 0.16       | △0.03    |
| 주택담보대출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0.16   | 0.11   | 0.12       | 0.24       | 0.24       | 0.12       | △0.00    |
| 가계신용대출등 |                         | 0.36   | 0.30   | 0.37       | 0.76       | 0.65       | 0.28       | △0.11    |
| 원화대출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0.30   | 0.24   | 0.21       | 0.43       | 0.39       | 0.18       | △0.04    |

\*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

### 3.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

- '23.9월말 연체율은 분기말 상·매각 등으로 전월말 대비 하락하였으나,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
- 은행 연체율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강화
  - 연체·부실채권 정리 확대와 함께 최근 거시경제 환경 등을 반영하여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